월요광장



박석무 우석대 석좌교수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은 탐욕에 가득찬 권력 자와 몇몇 군인들이 야합하여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 는 장면을 전국에서 TV 생중계로 목도했다. 5천여 명 의 시민들이 여의도로 달려가 국회를 침탈하려했던 특 수부대 대원들을 맨 몸으로 막아섰고, 계엄은 몇 시간 도 되지 않아 해제되었다.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총칼로 짓밟았던 5·18을 온몸 으로 겪은 당사자들과 광주시민들은 특히나 수천 개의 영현백(시신담는 백) 뉴스 앞에 몸서리를 쳤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 전두 환이 사형당하지 않고 자연사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찬탈한 권력을 누리며 쌓은 거대한 재산을 빼앗기지 않 고 3대까지 상속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기껏해야 1년여 징역만 살면 사면되어 떵떵거리는 삶 을 살 수 있는 사례를 직접 보았으니 욕심이 날만도 했 으리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 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3심제 사법제도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역사적 평가에 의한 역

5·18 가해자들의 부정한 재산 환수하자

사정의·사법정의에 더하여 경제정의까지 갖추어야 비 로소 전방위적으로 완성된 정의가 될 것이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게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경제정의이다. 1997년까지 진행된 신군부의 사법적 단죄에서 기소자 64명 중 17 명만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중 재산형 선고로는 전두환에게 추징금 2205억 원, 노태우에게 2638억 원이 전부였다. 수조 원을 상회 할 전두환 일가의 재산은 손자 전우원에 따르면 이제 3 대까지 거의 상속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노태우의 딸 노소영은 최태원과 이혼과정에서 과거 SK텔레콤 인수 비용에 포함된 300억 원을 자기 집안에서 주었다고 해 비자금의 존재를 실토했다.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등 도 기존 보도에 따르면 최소 천억 원대 이상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 이들이 내란에 의한 권력찬탈을 하지 아 니하고서 군인으로 끝났다면 이만한 재산이 있을 리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다. 5·18뿐만 아 니라 5공이래 행해진 삼청교육, 강제징집, 간첩조작, 사북항쟁의 피해자들을 합치면 거의 5만 명에 이른다. 이들 상당수는 국가폭력 아래 구금과 고문의 고초를 겪 어 몸은 망가졌고 트라우마로 마음도 무너졌으며, 감 시와 방해로 경제적 터전도 잃어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신세다.

이 기가 막힌 부조화가 계속되는 나라가 어찌 '무궁 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 로운 조국이겠는가? 피해자에게는 배상과 예우, 가해 자들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자본주의 시 장경제 체제에서 불법의 결과로 벌어들인 재산을 그대 로 누리도록 놔둔다면 그것이 어찌 마땅한 책임을 지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격언도 있거니와, 작가 알베르 까뮈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관용은 미래의 범죄에 대한 격려라고 일갈했다. 2005년 국회는 친일 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불의한 재산을 소급하여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내란에 의 해 세워진 5공에서 부와 권력을 누렸고 대물림하고 있 는 자들에 대하여 경제정의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앞 으로 야욕에 물든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다시 내란을 시 도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내란을 막아주어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국 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다. 주권자인 우리 는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란군 지도부로 일하다 고관대작의 권력을 누리면서 축적한 불의한 재산을 샅샅이 파악하여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 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5공 정부축재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데 앞장서주기를 바란 다.

진리는 연착하는 기차라고 했다. 철도를 출발한 기 차는 종착지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절 대로 없다. 아무리 늦더라도 끝내는 도착해야만 하는 것이 기차의 책무다. 불의한 재산의 축적자들이 상존 하고 있음이 사실일진대, 그들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 하는 일 또한 진리이다. 진리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의 무를 다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 說

여순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 진실은 뭔가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대 한 항소 포기를 밝힌지 하루 만에 항소장 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에서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 울중앙지법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침해였다"며 "국 가가 피해 회복을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 다. 이에 전남도는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 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 영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명 예를 되찾게 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 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국가가 항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 이 일고 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17 일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순천지원 1심 승 소 판결과 관련해 8명을 상대로 항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항소 주체가 검찰인지 다른 국가기관인지 알 수 없지만 정부 내 혼선이 빚어진 것은 확실하다.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 를 포기한 것은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에 대한 새 정부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 다.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 육대 등 국가배상책임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법무부 방침과 달리 여순사건 1 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면 항소 주체 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유족 들은 기쁨도 잠시 항소 취하 여부를 확인 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 다.

이래서야 정부의 영이 서겠는가. 검찰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 내 갈등의 하나가 노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진실을 파악해 과거사 피해자 권리 구제 원칙에 반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막 오른 국정감사…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 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시작 전부 터 여야간 극한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벼랑 끝 대치를 해온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 감장으로 무대를 옮겨 정국 주도권 쟁탈 전을 벌일 모양새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점검하는 국감의 본래 취지와 달리 정쟁 의 무대가 될 것이란 점이다. 더불어민주 당의 '내란 청산'에 맞서 국민의힘이 '실 정 심판'이란 프레임을 내세운 데서 알 수 있듯 초반부터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과 학기술정보통신위를 중심으로 격전이 예

문제는 이들 상임위의 쟁점이 모두 민 생이나 정책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3대(검찰・ 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 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장을 증인으 로 부르고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 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도 본질을 벗어난 흠집내기 정치 공세다. 국민의힘은 총무 비서관 시절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 1급 비 서관을 상대로 한 과도한 증인 요구는 꼬 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감을 만든다는 비 판을 받기 쉽다.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째를 맞았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실정을 논하기에 는 기간이 짧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만 몰두해서도 안된다. 여야를 떠 나 현안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잘 진행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악의 골목상권 침체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 을 챙기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감을 지켜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판단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출근길에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거미줄에 걸린 것처 럼 날벌레들이 주렁주렁 걸려 죽어있었다. 어젯밤 야간 운전 결과였다. 하루 산다는 그 하루조차 다 살지 못한 하 루살이 부스러기들이 내 자동차에 산산이 으깨져 있었다.

뭉개진 것 중에는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것도 있었 다. 헤드라이트 주변이 더욱 그랬다. 내게는 앞길을 안 내하는 찬란한 빛이었으나 하루살이에게는 죽음을 유 혹하는 빛이었다니, 참혹했다.

아는 친구가 '문학 맛보기'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기 꺼이 첫날 저녁, 곡성 목사동면 어느 마을회관에 문학 강의를 다녀오다 당한 봉변이었다. 강의가 늦게 끝나 자 속도를 냈다. 그런데 그 불빛과 속도가 문제였다. 나 하나 빨리 가자고 이렇게 많은 벌레가 죽어도 되는가.

예전에 경험과 비슷하게 이곳 마을어른들이 가장 궁 금해 하는 것 역시 언어였다. 그리고 그 시어를 끝내거 나 연결하는 서사를 어렵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는 두 노래를 연이어 들려주며 수업을 시작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 시 만나랴~!'

진짜 시인

어른들은 절로 콧노래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시라며, 시도 이렇게 노래처럼 읽고 쓰 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니 시 골 분들이 옥수수, 호박 따위를 챙겨주셨다. 압록에서 돌실 가는 자동차는 모두 바빴다. 도시에서 집으로 가 는 차들이 마치 영화처럼 추격전을 펼치며 내달렸다.

오늘 귀갓길은 일부러 자동차 길을 택하지 않고 강 건너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택했다. 좀 불편했지만 상 향등을 끄고 속도도 줄였다. 여남은 오리 새끼들이 길 에서 놀다가 내 불빛에 황급히 좌우로 흩어졌다. 난 차 를 옆에 대고 시동을 껐다. 벼 포기 사이에서 오리 새끼 들이 나와서 옹기종기 갈 길을 갔다. 어슴푸레한 달빛 이 앞섰다. 다시 시동을 켰다. 논에 무언가가 비췄다. 어둠 속에서 동글동글 두 개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저게 뭐지!' 고라니가 저녁 식사 중이었다. 하얗게 발하던 그 눈 빛은 자세히 보내 푸른색을 띠고 나를 보더니 이내 언 덕으로 사라졌다. 나를 사냥꾼으로 생각했을지 모른 다. 자동차의 불빛, 하늘의 별빛, 고라니의 그 파란 눈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를 단박 사로잡는 푸른 영혼의 눈빛, 오래도록 영감을 주는 빛이었다.

어제는 급히 가기 바빴던 강변이었는데, 천천히 가다 보니 정말 강변의 금모래와 하늘의 별들이 내게 반짝반 짝, 진짜 내게 시가 되어 다가왔다. 언어의 포장을 벗고 다가온 실물들, 시 속의 언어가 진짜가 되어 다가왔다. 어젯밤엔 바삐 가느라 놓친 것들이었다. 강변 금모래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나와 동승했다. 별들은 자동차 불

빛처럼 강렬하지 않았고 하루살이를 유혹하던 광란의 불 빛이 아니었다. 만져도 부딪혀도 죽지 않는 빛이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반짝반짝 살아있는 눈빛이 떠올 랐다. 어떻게 시를 가르치나 평가하려는 도시 사람들 눈빛과 완전 달랐다. 고라니 눈처럼 푸른 영혼을 가진 눈빛이었고, 하늘의 별빛이나 강여울의 윤슬을 닮은 눈빛이었다. 시와 함께 사는 사람들, 삶이 시였고 처음 부터 시인이었던 사람들 같았다.

'나비와 꽃송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들에는 반짝 이는 금모래 빛~'

그런데 누가 강변에 살지? 강변에 산 적이 없는 사람 이 평생 강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시를 이야기해도 되 나? 그래도 될까?

나는 강변 살자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들은 이미 강 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어디서 다시 만날 순간 을 노래하는 이라면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강과 오리와 고라니와 별과 함께 만난 이들이었다. 내 눈이 자동차 처럼 문명의 앞만 밝히는 눈이었다면 이 분들의 눈은 별빛과 윤슬 그리고 사슴 그대로의 눈빛이었다. 언어 에 갇힌, 화려한 수사와 분식으로 치장한 도시 시인들 과 달리, 다른 존재 다른 사물과 교감하는 마음의 불 빛, 언어를 초월한 영롱한 영혼을 켜고 있었다.

내가 틀렸다. 시는 언어가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영 혼이었다. 하루살이의 죽음을 목격했던 때보다 더 큰 충 격이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시를 쓴다고 깝죽대는 시인들이 아니라, 이곳 농민들이야말로 진짜 온몸으로 시를 사랑하는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無等鼓 🕡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이번 추석 때는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간의 연휴를 즐 길 수 있었다. 저마다 상황에 따라 연휴 기 간은 달랐지만 모처럼 긴 휴식을 통해 어 느 정도 심신의 피로를 씻을 수 있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일 년 중 가장 날씨가 좋고 곡 식과 과일도 풍성한 데서 연유했다. 추석 을 일컫는 다른 말인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를 의미하는 '가위'가 합해진 말이다. 추석, 즉 한가위는 음력 8 월의 가장 한가운데 있

는 날로 풍성한 결실과 여유와 평안이 함께하는 절기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추석의 풍습도 예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고향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 라지지 않았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밤새 열차를 타고 귀성을 하거나 미리 차 표 예매를 해 당일 고속버스로 고향에 가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은 자가운전 을하거나 KTX를 타고 귀성을하는 사람 들이 훨씬 많다.

명절에 고향을 찾아 가는 것은 수구초

심(首丘初心)과 같은 마음에서 비롯됐 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 하면 아마도 '추억'이 아닐까 싶다. 이번 추석 연휴 안방을 휩쓴, 다시 말해 지난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왕'(歌王) 조용필 공연을 빼놓을 수 없 다. KBS가 방영한 '광복 80주년 대기획 -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공연은 기성 세대들에게는 옛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간이었다.

가왕의 단독 공연이 KBS에서 방송된 것은 지난 1997년 '빅

'가왕'(歌王)조용필 쇼' 이후 28년만이었다. 이버 고여 시처류이 저

이번 공연 시청률이 전 국 기준 15.7%에 이를

만큼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 다. 150분 간 조용필은 '창밖의 여자', '단 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고추잠자 리', '꿈' 등 28곡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1980~90년대 조용필의 노래를 들으며 한 시대를 건너왔던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에게 그의 노래는 추억 그 자체였다. 조용 필의 노래가 울림을 주는 것은 그 빛바랜 추억 속에 저마다의 청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광주공원 앞 청춘빛포차광장



卫

기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공원 공용주차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청춘빛 포차광장'이 들어섰다. 자동차를 위한 공간을 사람을 위한 문화광장으로 전환한 이 변화는 단순한 미관 개선 을 넘어 도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다. 광주가 추진하는 '대·자·보 도시 사업(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과 맞물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선택이다. 이제 광주 는 '걷기 좋은 도시, 타기 편한 도시'를 지향하며 주차 장의 철거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었다.

광주공원은 1913년 호남 최초의 공원으로 태어나 근 대 도시의 변화를 상징하며 민주화 운동의 현장까지 품 었던 공간이다. 시민의 쉼터이자 소통의 마당이었던 곳이 어느 순간 주차장으로 변하며 본래의 가치를 잃었 으나 이번 전환으로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무대로 다시 서게 되었다. 도시의 변화를 함께해온 장소가 이제는 시민과 청년이 어울리는 광장으로 되살아나며 광주가 지향하는 비전의 거울이 되고 있다. 단순한 과거의 회 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진화하는 공간

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올해 광장은 주말마다 청년 버스킹과 인디 공연으로 활기를 띠었다. 청년 창작자들의 자작곡이 울려 퍼지 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코스튬플레이 무대가 광장을 채웠고 희경루 누각에서는 스트리트 댄스 배틀 이 벌어졌다. 200여 명의 춤꾼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 러진 장면은 전통과 현대, 기성과 청춘이 만나는 진풍 경이었다. 청춘빛포차광장은 세대를 잇고 문화를 섞어 내는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민의 일 상 속 문화가 살아 움직일 때 광장은 더 이상 단순한 공 간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 된다.

주차장을 광장으로 전환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흔하 다. 뉴욕 타임스스퀘어는 도로를 없애고 보행광장으로 탈바꿈하여 세계인의 명소가 되었고, 파리 세느강변은 차 없는 강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로테르담의 사우부르크 광장은 죽은 주차장이 시민과 예술의 광장 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광주의 청춘빛포차광장은 여기 에 역사와 민주, 청년 인디문화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더한다.

청춘빛포차광장의 미래 전략은 몇 가지를 품었으면 좋겠다. 첫째,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해야 한다. 1913년 개장해 민주화의 흔적, 시민정신을 품은 공원이라는 이 야기를 예술 프로그램으로 풀어내야 한다. 광주를 상징 하는 각종 기념행사와 결합할 때 광장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민주와 예술의 광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청년 창작자의 실험 무대가 되어야 한다. 주류

공연장이 아닌 열린 플랫폼으로서 인디음악, 거리예 술, 코스튬플레이 같은 새로운 시도를 포용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 도시정책과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 '주 차장을 없애 만든 광장'이라는 상징을 탄소중립 메시 지로 확장하고 업사이클링 아트와 제로웨이스트 행사 같은 실천적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

광주는 오랫동안 예향의 도시라 불려왔다. 마한시대 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길다. 불교문화부터 융성한 문 화예술이 일본에 이르렀고 정읍사, 시가문학, 남종화, 현대미술 등이 계승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인물도 많 다. 임방울, 김현승, 오지호, 허백련 등 수많은 예술인 이 광주에서 활동하며 한국 예술사에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광주가 '예향'이라는 이름을 지켜왔다. 거기에 비엔날레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 실감 콘텐츠큐브 등 인프라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가지 부 족한 것은 시민과 예술인이 직접 체험하고 창조하는 콘 텐츠와 의지이다. 청춘빛포차광장은 바로 그 의지를 고양하고 발현시키는 실험장이다.

자동차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청춘빛포치광장은 도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 다. 이곳이 청년 창작자의 실험실이자 시민 모두의 광장 이 될 때 광주는 예향의 정체성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도시가 품은 문화적 상징성은 공간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시민의 참여와 삶의 방식 속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 어지는 광주의 심장, 그것이 곧 청춘빛포차광장이다.

光则日報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 X 222-0195⟩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